

# 올여름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운영 현장점검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대전지역 스마트쉼터·이동노동자 쉼터 현장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월 13일(토) 대전광역시를 방문해 무더위 쉼터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폭염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살폈다.

이번 점검은 올해 때 이른 무더위가 시작되고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전망됨에 따라, 무더위 쉼터가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폭염 피해 예방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광용 본부장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내 스마트 쉼터를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해당 시설은 독서와 휴식이 가능한 북카페형 쉼터로 주택가 인근 공원에 설치돼 주민과 폭염 취약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합형 생활밀착쉼터로 조성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현장에서 냉방설비 정상 작동 여부와 주말·공휴일 개방 상황, 이용객 편의시설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이동노동자 쉼터도 방문해 시설 운영 실태와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휴식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직종별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냉방물품 지원 등을 통해 폭염에 취약한 이동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온열질환 예방을 지원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올여름 무더위가 우려되는 만큼,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효성 있는 폭염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무더위 쉼터 등 다양한 폭염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방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폭염 취약계층 보호와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연재난실 기후재난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진희 (044-205-6360)
		담당자	사무관	김용환 (044-205-6366)



# 폭염 6대 행동요령



본격적인 무더위  
● 폭염특보 33°C

**무더위 기상상황 확인**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야외활동시 신체노출 최소화**

\*실내온도 26~28 유지

**시원한 장소 휴식**

**충분한 수분섭취**

**가족 또는 이웃의 안전 살피기**